

에코세대의 사회인식 및 건강상태가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송효정*, 박민정**

국립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The Convergent Influence of Social Awareness and Health Status on Social Support in Korean Echo Generation

Hyo-Jeong Song*, Min-Jeong Park**

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Nurs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성인용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에코세대의 사회인식 및 건강상태가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성인용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자료는 2015년 8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되었고, 분석대상자는 1,653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 평균점수는 19.60점이었다. 에코세대 사회적지지 영향요인은 이웃관계 원만함, 계층인식, 행복감 유무, 사회의 평등성 여부, 사회의 안정성 유무, 자존감 정도, 의사소통 정도 및 스트레스 정도로 나타났다.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에코세대의 사회인식 및 건강상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네트워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 에코세대, 사회인식,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영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vergent influence of social awareness and health status on social support in Korean echo generation by using Korea adult psycho-social anxiety survey data. Korea adult psycho-social anxiety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to September 2015 and included 1,653,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 regarding social support.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chi-square and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23.0 program. The mean score of social support was 19.60. The influencing factors on social support were neighborhood relations, perceived class, euphoria, equality in society, stability in society, self Esteem, communication, and stress,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to strengthen social support of echo generation. A more careful examination may be warranted.

Key Words : Echo generation, Social awareness,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Influence

Received 8 June 2017, Revised 31 July 2017

Accepted 20 August 2017, Published 28 August 2017

Corresponding Author: Min-jeong Park(Kunsan National Univ.)
Email: itsmedal@naver.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echo)세대는 1979년부터 1992년생으로 전체인구의 약 20%를 차지하여 향후 한국사회와 경제를 이끌어갈 주력 세대이다[1]. 이들은 부모세대인 베이비붐세대의 소득증가로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로 자동차, 휴대폰, 해외여행 등 소비생활에 매우 익숙하며 높은 교육수준과 자아실현 욕구를 지니고 있고 현재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등에 해당하며 본격적인 사회진입기를 맞이하고 있어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1,2].

그러나 최근의 경기불황과 저성장 국면 진입에 따라 취업난을 겪고 있으며 학자금대출, 주택대출 등으로 인한 신용관리위험 및 높은 주거비용의 3중고를 겪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분위기에 따라 이들 세대를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여기에 인간관계 형성 및 내 집 마련을 더한 5포 세대, 심지어 취업과 희망마저 포기했다는 의미로 7포 세대라고까지 자조적 의미로 부르기도 한다. 그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연애나 결혼이 아닌 취업과 경제활동이며, 업이 되더라도 결혼이나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3].

에코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다르게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감성, 문화, 유행 등에 민감하며, 동시에 기존의 사회질서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4]. 이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문화적 관점에서 소규모 집단으로 분화하며 자기중심적이고, 조직화하거나 연대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5]. 이들의 52.5%는 스스로를 혼밥(혼자 먹는 밥)과 혼술(혼자 먹는 술)을 즐기는 ‘나홀로족’이라고 생각하고[6], 사회적 관계로부터 점점 고립되어가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지지는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은둔형 외톨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은 진학과 취업 실패, 인간관계의 좌절로 인한 트라우마, 어린 시절 내재된 상처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용불안의 사회 분위기도 은둔형 외톨이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7].

우리나라는 그 사회 구성원의 상호지지 정도를 나타

내는 ‘사회관계’항목에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고[8],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높은 불평등 수준, 낮은 사회이동 그리고 낮은 사회적 신뢰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생각하고 있다[9]. 또한 에코세대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법의 집행과 소득·재산에서의 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확정성이 높다는 사회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10] 이에 따른 사회불안은 개인의 사회적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게 나타나게 된다[11]. 에코세대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과 이들이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사회인식과 사회적지지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가진다.

사회적지지는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유용한 건강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12] 에코세대의 상당수는 미취업·실업으로 인하여 분노, 좌절, 불안, 적대감등 부정적 정서를 우선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자립능력저하, 가족관계에서 상호작용 회피, 대인관계의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적지지가 약화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단순히 우울감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감 증가로 인하여 자살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나타났[13]. 또한 에코세대의 사망원인의 45.9%는 자살이고, 청장년층 자살시도자의 7.1-15.4%가 질병으로 신체적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14,15] 에코세대의 사회인식 및 건강상태와 사회적지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지지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서 활용되어 아동[16,17], 초등학생[18], 중학생[19], 고등학생[20], 노인[21,22,23]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층 대상의 사회적지지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학생[24]에 국한된 시도가 대부분이며, 종속변수로서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로 조사된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에코세대의 사회인식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회적지지의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분석해봄으로써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에코세대의 사회인식 및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 에코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현황을 파악한다.
- 2) 우리나라 에코세대의 사회인식에 따른 사회적 지지 현황을 파악한다.
- 3) 우리나라 에코세대의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 현황을 파악한다.
- 4) 우리나라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8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조사한 성인용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원시자료는 보건복지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자료신청서를 작성한 후 게시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자료를 작성한 게시물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았다.

표본은 2015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만19세 이상)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인구비(성, 연령, 거주지역 구성비)를 고려하여 비례할당 추출하였고, 표본가구 및 대상자는 전국 3,552개 읍면동 전체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확률비례추출방식으로 200개 읍면동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계통추출방식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였으며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수집되었다.

성인용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자료는 모두 7,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모든 설문에 응답한 에코세대 1,653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성인용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설문지에서 “귀하께서는 사회적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0점(전혀 받고 있지 않음)에서 10점(매우 많이 받고 있음), “귀하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귀하는 평소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0점(매우 적음)에서 10점(매우 많음)까지 표시하여 응답한 점수를 원시자료에서 자료설계자가 합산하여 제시한 사회적지지 점수를 사용하였다.

2.2.2 사회인식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원만함, 이웃관계 원만함, 목표 달성 가능성 유무, 계층인식, 계층상승 가능성 유무, 소속감 유무, 행복감 유무, 사회의 평등성 여부, 사람에 대한 신뢰감 유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감 유무, 사회의 안정성 유무, 자존감 및 의사소통 정도로 보았다. 가족관계와 이웃관계 원만함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 좋음’,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목표 달성 가능성은 ‘매우 높다’와 ‘높다’를 ‘유’, ‘매우 낮다’와 ‘낮다’를 ‘무’, 계층인식은 ‘최상위’와 ‘중상위’를 ‘상’, ‘중위’를 ‘중’, ‘최하위’와 ‘하위’를 ‘하’, 계층상승 가능성 유무는 ‘매우 높다’와 ‘높다’를 ‘유’, ‘매우 낮다’와 ‘낮다’를 ‘무’로 분류하였다. 소속감 유무는 ‘매우 많이 느낀다’와 ‘많이 느낀다’를 ‘유’, ‘매우 적게 느낀다’와 ‘적게 느낀다’를 ‘무’, 행복감 유무는 ‘매우 행복함’과 ‘행복함’을 ‘유’, ‘매우 불행함’과 ‘불행함’을 ‘무’로 분류하였다. 사회의 평등성 여부는 ‘매우 평등’과 ‘평등’을 ‘유’, ‘매우 불평등’과 ‘불평등’을 ‘무’, 사람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감 유무는 ‘매우 신뢰할 수 있음’과 ‘신뢰할 수 있음’을 ‘유’, ‘전혀 신뢰할 수 없음’과 ‘대체로 신뢰할 수 없음’을 ‘무’, 사회의 안정성 유무는 ‘매우 안정적인’과 ‘안정적’을 ‘유’, ‘전혀 안정적인지 않음’과 ‘안정적이지 않음’을 ‘무’로 분류하였다. 자존감의 정도는 자존감에 대한 10개의 문항에 대해 0점(대체로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 표시한 점수를 원시자료에서 자료설계자가 합산하여 제시한 자존감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의사소통의 정도는 가족과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한 두 질문에 대해 0점(매우 적음)에서 10점(매우 많음)까지 표시한 점수를 원시자료에서 자료설계자가 합산하여 제시한 의사소통 변수를 사용하였다.

2.2.3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건강상태, 운동능력 제한, 자기 관리 제한, 일상생활 제한, 통증/불편 유무,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불면증 유무, 스트레스 정도, 우울 및 불안 유무, 정신적 충격 유무, 자살생각 유무로 보았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과 ‘좋음’을 ‘ 좋음’, ‘보통’을 ‘보통’, ‘매우 나쁨’과 ‘나쁨’을 ‘나쁨’,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 제한 및 통증/불편 유무는 ‘없음’을 ‘무’로 나머지는 ‘유’로 구분하였다. 흡연 여부는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경우를 ‘무’로 나머지는 ‘유’, 음주 여부는 ‘지난 1년 동안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경우’를 ‘무’로 나머지는 ‘유’로 분류하였다. 불면증 유무는 ‘최근 3개월 동안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무’로 나머지는 ‘유’, 스트레스 정도는 ‘거의 느끼지 않음’, ‘조금 느끼는 편임’, ‘많이 느끼는 편임’, ‘매우 많이 느낌’에 따라 분류하였다. 우울 유무와 불안 유무는 우울의 11개 문항과 불안의 20개 문항의 결과를 자료설계자가 정상군과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결과에 따라 정상군은 ‘무’, 나머지는 ‘유’로 분류하였다. 자살생각 유무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를 ‘유’, 없는 경우를 ‘무’로 분류하였다.

2.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23.0 program을 이용하였고 분석 시 표준가중치인 ws(변수명)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에코세대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인식 및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지지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다중비교분석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 2)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배우자 유무, 사회인식 변수들 중에서 가족관계 원만한, 이웃관계 원만한, 목표 달성 가능성 유무, 계층인식, 계층상승 가능성 유무, 소속감 유무, 행복감 유무, 사회의 평등성 여부, 사람에 대한 신뢰감 유무, 사회의 안정성 유무는 더미처리하고, 자존감 및 의사소통 정도는 연속변수로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2단계에서는 신체적 건강상태, 통증/불편 유무,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불면증 유무, 스트레스 정도, 우울 및 불안 유무, 정신적 충격 유무, 자살생각 유무를 더미처리하여 투입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에코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653명으로 사회적지지 평균 점수는 30점 만점에 19.60점이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00점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19.38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50, p<.001$). 여성, 30대,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지지 점수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1>.

<Table 1> Social suppor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53)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t	p
Total			19.60±3.49		
Sex	Male	871(52.7)	19.44±3.42	-1.90	.058
	Female	782(47.3)	19.77±3.55		
Age	< 29	925(55.9)	19.54±3.56	-0.73	.464
	≥ 30	728(44.1)	19.67±3.40		
Spouse	Have	590(35.7)	20.00±3.38	3.50	<.001
	None	1,063(64.3)	19.38±3.53		
Religious activities	Yes	281(17.0)	19.69±3.48	0.47	.636
	No	1,373(83.0)	19.58±3.49		
Economic activity	Yes	1,245(75.3)	19.53±3.46	-1.46	.145
	No	408(24.7)	19.81±3.56		

3.2 에코세대의 사회인식에 따른 사회적지지

사회인식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t=7.19, p<.001$)와 이웃관계가 원만한 경우($t=6.87, p<.001$),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경우($t=9.00, p<.001$), 상위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F=57.52, p<.001$), 계층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t=9.39, p<.001$),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t=10.32, p<.001$)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t=11.54, p<.001$), 사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한 경우($t=10.38, p<.001$),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t=9.54, p<.001$), 사회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경우($t=10.00, p<.001$)에 사회적지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2>.

<Table 2> Social support according to Social Awareness (N=1,653)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t/F	p	Scheffé
Family Relations	Good	1,592(96.3)	19.77±3.30	7.19	<.001	
	Bad	61(93.7)	15.15±4.98			
Neighborhood relations	Good	1,386(83.8)	19.91±3.20	6.87	<.001	
	Bad	267(16.2)	17.98±4.37			
Possibility to achieve the goal	Yes	1,282(77.6)	20.06±3.16	9.00	<.001	
	No	371(22.4)	18.00±4.06			
Perceived class	High	155(9.4)	20.94±3.03 ^a	57.52	<.001	a>b>c
	Medium	1,082(65.5)	19.97±3.11 ^b			
	Low	416(25.2)	18.14±4.09 ^c			
Possibility of class rising	Yes	1,200(72.6)	20.12±3.20	9.39	<.001	
	No	453(27.4)	18.22±3.83			
Belonging	Yes	1,342(81.2)	20.08±3.16	10.32	<.001	
	No	311(18.8)	17.54±4.06			
Euphoria	Yes	1,498(90.6)	19.97±3.20	11.54	<.001	
	No	155(9.4)	16.05±4.10			
Equality in society	Yes	960(58.1)	20.36±2.91	10.38	<.001	
	No	693(41.9)	18.54±3.93			
Trust in person	Yes	1,147(69.4)	20.17±3.11	9.54	<.001	
	No	506(30.6)	18.30±3.92			
Trust in community	Yes	1,640(99.2)	19.62±3.46	1.67	.121	
	No	13(0.8)	17.10±5.39			
Stability in society	Yes	1,089(65.9)	20.25±2.97	10.00	<.001	
	No	564(34.1)	18.33±4.02			
Self Esteem			30.34±2.33			
Communication			10.92±3.16			

3.3 에코세대의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지지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F=62.00, p<.001), 통증/불편이 없는 경우(t=2.14, p=.041), 흡연하지 않는 경우(t=3.08, p=.002), 정상적으로 음주하는 경우(F=17.31, p<.001),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 경우(F=23.70, p<.001), 불면증이 없는 경우(t=5.06, p<.001), 우울이 없는 경우(t=3.32, p=.002) 및 불안이 없는 경우(t=3.80, p<.001), 정신적 충격(t=3.02, p=.003)이 없는 경우, 자살생각이 없는 경우(t=5.39, p<.001)에 사회적지지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3.4 에코세대 사회적지지의 융복합적 영향요인

에코세대 사회적지지의 융복합적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1에서는 단순회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일반적 특성 중 배우자 유무와 사회인식 특성에서 가족관계 원만함, 이웃관계 원만함, 목표 달성 가능성 유무, 계층인식, 계층상승 가능성 유무, 소속감 유무, 행복감 유무, 사회의 평등성 여부, 사람에 대한 신뢰감 유무, 사회의 안정

<Table 3> Social support according to Health Status (N=1,653)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t/F	p	Scheffé
Physical health status	Good	1,401(84.7)	19.97±3.25 ^a	62.00	<.001	a>b>c
	Fair	237(14.4)	17.68±3.78 ^b			
	Poor	15(0.9)	14.83±6.03 ^c			
Restriction of exercise	No	1,646(99.6)	19.61±3.49	1.33	.112	
	Yes	7(0.4)	17.84±2.48			
Restriction of self care	No	1,648(99.7)	19.60±3.49	1.23	.218	
	Yes	5(0.3)	17.51±3.85			
Restriction of daily life	No	1,645(99.6)	19.61±3.49	1.53	.127	
	Yes	8(0.4)	17.62±2.81			
Pain/discomfort	No	1,625(98.3)	19.64±3.42	2.14	.041	
	Yes	28(1.7)	17.26±5.85			
Smoking	No	1,150(69.6)	19.77±3.45	3.08	.002	
	Yes	503(30.4)	19.20±3.55			
Drinking	No	168(10.1)	19.02±3.84 ^a	17.31	<.001	a,c<b
	Normal	807(48.9)	20.11±3.22 ^b			
	Risk	678(41.0)	19.13±3.62 ^c			
Stress	little	61(3.7)	20.51±3.15 ^a	23.70	<.001	a>b,c,d
	A little	895(54.1)	19.92±3.25 ^b			
	Much	629(38.0)	19.40±3.42 ^c			
	Very much	68(4.1)	16.48±5.31 ^d			
Insomnia	No	1,288(77.9)	19.87±3.20	5.06	<.001	
	Yes	365(22.1)	18.66±4.23			
Depression	No	1,616(97.7)	19.67±3.38	3.32	.002	
	Yes	37(2.3)	16.41±5.96			
Anxiety	No	1,577(95.4)	19.70±3.38	3.80	<.001	
	Yes	76(4.6)	17.56±4.86			
Psychological trauma	No	1,568(94.9)	19.66±3.46	3.02	.003	
	Yes	85(5.1)	18.48±3.86			
Suicidal ideation	No	1,593(96.4)	19.71±3.40	5.39	<.001	
	Yes	60(3.6)	16.63±4.38			

성 유무, 자존감 및 의사소통 정도를 투입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06~.33로 모두 .80을 넘지 않고, 분산팽창인자(VIF)가 1.03~1.73로 모두 2.0을 넘지 않으며, 공차한계(tolerance limit)가 0.58~0.97로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만한 경우는 없었다.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웃관계 원만함(β=0.07, p<.001), 계층인식(β=0.06, p=.001), 행복감 유무(β=0.06, p=.004), 사회의 평등성 여부(β=0.06, p=.010), 사회의 안정성 유무(β=0.09, p<.001), 자존감(β=0.07, p<.001) 및 의사소통 정도(β=0.56,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49.1% 였다(F=123.53, p<.001). 즉 이웃관계가 원만할수록,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사회가 평등하고 안정할수록, 자존감과 의사소통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4> Associating Factors of Social support in Echo Generation (N=1,653)

Variable	Model 1		Model 2	
	β	t(p)	β	t(p)
Spouse	0.03	1.41(.158)	0.02	1.12(.261)
Social awareness				
Family Relations	0.01	0.34(.731)	0.01	0.27(.788)
Neighborhood relations	0.07	3.60(<.001)	0.07	3.52(<.001)
Possibility to achieve the goal	0.00	0.05(.962)	0.00	-0.11(.910)
Perceived class	0.06	3.29(.001)	0.07	3.32(.001)
Possibility of class rising	0.00	0.02(.988)	0.00	-0.18(.857)
Belonging	0.03	1.68(.092)	0.04	1.80(.072)
Euphoria	0.06	2.91(.004)	0.06	2.68(.007)
Equality in society	0.06	2.58(.010)	0.06	2.56(.010)
Trust in person	0.02	1.06(.288)	0.02	0.87(.383)
Stability in society	0.09	4.04(<.001)	0.09	4.03(<.001)
Self Esteem	0.07	3.55(<.001)	0.07	3.48(.001)
Communication	0.56	28.42(<.001)	0.55	27.63(<.001)
Health status				
Physical health status			0.03	1.57(.117)
Pain/discomfort			-0.01	-0.34(.731)
Smoking			0.02	1.22(.224)
Drinking			0.00	-0.01(.989)
Stress			0.04	2.15(.032)
Insomnia			-0.02	-0.91(.364)
Depression			-0.02	-0.94(.346)
Anxiety			0.00	-0.18(.860)
Psychological trauma			-0.02	-1.05(.292)
Suicidal ideation			0.01	0.60(.547)
F(p)	123.53(<.001)		70.37(<.001)	
R ²	.495		.498	
Adjusted R ²	.491		.491	

Model 2에서는 Model 1에 신체건강 관련 변수인 신체적 건강상태, 통증/불편 유무,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불면증 유무, 스트레스 정도, 우울 및 불안 유무, 정신적 충격 유무, 자살생각 유무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변수간의 상관관계수가 .09~.65로 모두 .80을 넘지 않고, 분산팽창인자(VIF)가 1.05~1.75로 모두 2.0을 넘지 않으며, 공차한계(tolerance limit)가 0.57~0.95로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만한 경우는 없었다.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웃관계 원만함($\beta=0.07, p<.001$), 계층인식($\beta=0.07, p=.001$), 행복감 유무($\beta=0.06, p=.007$), 사회의 평등성 여부($\beta=0.06, p=.010$), 사회의 안정성 유무($\beta=0.09, p<.001$), 자존감 정도($\beta=-0.07, p=.001$),

의사소통 정도($\beta=-0.55, p<.001$) 및 스트레스 정도($\beta=0.04, p=.032$)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49.1%였다($F=70.37, p<.001$). 즉 이웃관계가 원만할수록,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행복하며 사회가 평등하고 안정할수록, 자존감과 의사소통의 정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지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심각한 취업난에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에코세대의 사회인식 및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 수준은 30점 만점에 19.6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코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지지를 연구한 논문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에코세대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26,27]의 100점 만점에 96.27점, 48점 만점에 37.66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에코세대는 2015년 현재 23~36세의 청년층에 해당되나 선행연구는 취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어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제외되고 학교 및 동아리 등에서 학우 및 친구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대학생에 국한되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 조사도구의 차이에 의한 것을 감안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 수준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에코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국한되어 배우자 유무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28,29]에서 사회적지지가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자녀관계와 친구관계 모두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높게 나타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에코세대의 사회인식에 따른 사회적지지 수준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경우, 상위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

계층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우리사회가 안정된 사회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경험의 행위인 정서적지지, 개인의 문제를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지지, 개인의 문제를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로 물질적지지 및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평가적지지로 구분된다[30]. 따라서, 정서적지지 및 정보적지지의 제공으로 배우자 및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물질적지지 및 정보적지지의 제공으로 목표달성을 통해 계층상승하거나 상위계층으로 지각하고 있는 경우, 평가적지지의 제공으로 사람을 신뢰하며 사회가 평등하고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에코세대의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적지지 수준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통증이나 불편이 없는 경우, 흡연을 안 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음주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는 않는 경우, 불면증, 우울, 불안, 정신적 충격 및 자살생각이 없는 경우에 사회적지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고,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정도가 높으면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났는데[31] 이는 건강상태가 좋고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할수록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아지며[32] 이를 통해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울, 충동성, 불안, 자살생각이 낮은 경우에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33,34]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정신건강이란 정신적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종류의 개인적·사회적 적응을 포함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진하고, 균형 있고, 통일된 성격의 발달로 정의되어 일상생활의 적응정도[35]로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적지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웃관계 원만함, 계층인식, 행복감 유무, 사회의 평등성 여부, 사회의 안정성 유무, 자존감 정도, 의사소통

정도 및 스트레스 정도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만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로부터 제공받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라고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개념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 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한다[30].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기능은 사랑, 동정, 관심을 포함하는 정서적지지,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느끼는 요구와 관심을 의미하는 관계망지지, 개인의 능력을 신뢰하고 사고, 감정, 행동을 지지하는 존중지지, 실제적인 충고와 상황의 평가를 의미하는 정보지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재정적 지지의 다섯 가지 기능이다[36]. 이는 의사소통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이웃관계를 원만히 유지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고 계층인식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평등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됨에 따라 사회적지지는 상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하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사회진입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우리나라 에코세대의 사회인식 및 건강상태가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아직까지 에코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고, 사회적지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성인용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적지지를 분석하였는데 설문조사의 특성 상 모든 문항이 객관식으로 조사되어 대상자가 생각하는 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사회적지지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이용한 변수이외에도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2015년 조사시점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단면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심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양적연구와 더불어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에코세대의 사회적지지에겐 이웃관계의 원만함, 계층인식, 행복감 유무, 사회의 평등성 여부, 사회의 안정성 유무, 자존감 정도, 의사소통 정도 및 스트레스 정도로 나타나 개인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와 반복연구를 통한 심화연구를 제안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회적지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에코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and echo generation."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7.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9/1/index.board?bmode=read&aSeq=259163.
- [2] H. J. Kim, "The effects of values on work and attitudes on leisures on retirement prepare behavior: a comparative study of the first, second echo baby-boom genera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5.
- [3] S. H. Lee, "A study on acceptance and user satisfactation of smart home-focus on echo-boomer generation-" doctor's thesis, Seoul venture University; 2015.
- [4] D. B. Park, "Echo boomer's three major financial crisis." Seoul: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2. Weekly Economic Review No. 491.
- [5] H. Y. Lee, H. S. Koh, S. H. Kim, Y. S. Lee, M. H. Huh, "A comparative study of the digital generation and the baby-boom generation." The Korean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Jincheon, 2013 December. No.13-49.
- [6] B. M. Kim, "The young half of their 20s and 30s 'I'm nahollo who enjoys honbap, honsul'." [Internet]. Seoul: The Kyunghyang Shinmun; 2017. Available from: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9200941011&code=920100.
- [7] J. H. Shin, "Reclusive loner 30 million." [Internet]. Seoul: The financial news; 2017. Available from: <http://www.fnnews.com/news/201701261252403577>
- [8] M. W. Lee, "Analysis of and suggested points of OECD social cohesion indicato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Seoul, 2016 July. No. 62.
- [9] Korea Institue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2016."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2016 December. No.417001.
- [10] Welfare-state Youth Network, "Life and social percep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2014." Welfare- state Youth Network. Seoul, 2015 June.
- [11] S. Y. Lee, J. U. Jung, D. K. Whang, C. K. Son, S. M. Yoon, S. M. Chae, M. R. Cha, H. J. Kim, "Some Causes of the Psycho-social Anxiety in Korea and How to Address The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2015 June.
- [11] M. K. Lim, M. H. Kim, Y.J. Shin, W. S. Yoo, B. M. Yang,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Status in a Low Income Neighborhood of Seoul, Korea."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36 No.1, pp.54-62, 2003.
- [13] C. L., Ra, H. K. Lee, "Employment transitions and suicide ideation among echo generatio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Vol.23 No.4, pp.369-375, 2013. DOI: <https://doi.org/0.4332/KJHPA.2013.23.4.369>
- [14] T. M. Song, D. L. Jin, J. Y. Song, J. Y. An, Y. H. Cho. "A comparative analysis of suicide characteristics by age group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38 No.1, pp.122-142, 2013.
- [1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National survey on suicide.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 [16] S. H. Kang, S. J. Chang, "The mediating effect of character strength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s and subjective well-being: focused on community child centers." Korea Journal of

- Counseling. Vol.14 No.3, pp.2395-2416, 2013.
- [17] Y. S. Moon, J. S. Han, "Influenc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Stress-Coping Behaviors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1, pp.417-425, 2016.
- [18] E. J. Gu, J. H. Park,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affect and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5, pp. 289-312, 2016.
- [19] M. G. Choi, S. Y. Sung, "Structur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regulation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1, pp.357-373, 2012.
- [20] S. J. Park, "The effects of Self-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Dormitory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in Convergence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2, pp.287-293, 2016.
- [21] I. S. Uhm, "Study on the effect of the elderly's liv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The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Vol.22 No.1, pp.73-90, 2012.
- [22] N. Y. Yang, S. Y. Moon, "The Effects of Suicidal Thought on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0 No.11, pp.515-524, 2012.
- [23] L. C. Kim, J. A. Paek, "The effects of 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7, pp.279-287, 2016.
- [24] J. W. Kim, J. H. Lee, "An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self-management of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 in sports on stress coping and career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5 No.5, pp.117-132, 2016.
- [25] Y. H. Lee, H. K. Kim, M. S. Kim,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psychological symptoms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 No.10, pp.483-492, 2016.
- [26] N. R. Kim, K. H. Lee, "The Influence of Need for Approval, Social Support and Social Anxiety on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4, pp.245-264, 2015.
- [27] D. H. Lee, E. J. Son, "The mediating effects of preference for online social inter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kills, social support, loneliness and problematic internet us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5, pp.3105-3123, 2013.
- [28] E. S. Yu, S. S. Le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y Support, Social Support for Elderly's Self-identity."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2, pp.254-273,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2.254>
- [29] E. K. Kim, G. S. Ha, "The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 No.12, pp.811-820, 2013.
- [30]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te thesis, Yonsei University; 1985.
- [31] J. W. Oh, Y. S. Moon, "A Predictive Mod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0, pp.391-403, 2014.
- [32] N. Y. Yang, S. Y. Moon,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1, pp.33-42, 2013.
- [33] K. H. Hwang, Y. S. Yoo, O. H. Cho, "Smartphone Overuse and Upper Extremity Pain, Anxiety,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10, pp.365-375,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10.365>
- [34] S. M. Han, "The effects of suicide ideation on suicide reports of mass media and social support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25 No.1, pp.133-142, 2012.

[35] Y. H. Lee, "Mental health. Seoul: Hyunhaksa", 2003.

[36] D. E. Cutrona, "Social support in couples: Marriaheasare source in times of stress: housand Oaks, CA: Sage" 1996.

송 효 정(Song, Hyo-Jeong)



- 1997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1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감염관리,

만성질환자 간호, 중환자간호학, 노인간호학

· E-Mail : hjsong@jejunu.ac.kr

박 민 정(Park, Min Jeong)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0년 6월 ~ 2012년 8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2년 9월 ~ 현재 :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만성질환자 간호, 중환자간호학, 보건간호학

· E-Mail : itsmedal@naver.com